

젖은 벽탑에서의 산소 전달에 관한 연구

도갑수 · 이승용

승천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83년 12월 21일 접수, 1984년 5월 16일 채택)

A Study on the Oxygen Transfer in the Wetted-Wall Column

Kap-Soo Doh · Seung-Yong Le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oong-Jun University, Seoul 151, Korea

(Received 21, December 1983; accepted 16, May 1984)

요약

젖은 벽탑을 사용하여 증류수에 의한 공기중의 산소의 물질전달에 대하여 온도와 액체유량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결과치로부터 총괄액상물질전달계수를 계산하였다. 실험은 Reynolds 수가 220~540, 온도가 5~40°C의 제한된 범위에서 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1. 총괄액상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K_{L(t)} = K_{L(20)} \cdot 1.007^{(t-20)}$$

2. 젖은 벽탑에서 실험결과치의 무차원 상관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Sh_L = 83.89 (Re_f)^{0.0782} (Sc_L)^{0.2607}$$

Abstract—A Study on the Oxygen Transfer in the Wetted-Wall Column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liquid flow rate in the mass transfer of oxygen to liquid water in the wetted wall column was studied. The over-all liquid phase mass transfer coefficient were calculated from the experimental data. The runs were made over a limited range of Reynolds number 220 to 540 and temperature 5°C to 40°C.

As a result of this study:

1.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over-all liquid phase mass transfer coefficient was obtained as follow.

$$K_{L(t)} = K_{L(20)} \cdot 1.007^{(t-20)}$$

2. The dimensionless correlation of the experimental data in the wetted wall column was obtained as follow.

$$Sh_L = 83.89 (Re_f)^{0.0782} (Sc_L)^{0.2607}$$

I. 서론

적인 이론은 Lewis[1]와 Whitman[2]이 세안한 이중경막이론과 Higbie[3]가 제안한 침투이론이 있다. 이 외에도 이중경막이론과 침투이론을 기초로

기체와 액체간의 물질전달 메카니즘에 관한 대표

해서 많은 모델이 발표되었다[4~8].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가 작은 경우 기체경막저항은 무시되고 액체경막 저항이 지배저항이 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결과로는 Lamourelle등[9]이 젖은 벽탑에서 실험을 하여 난류영역에서의 액상물질전달계수는 확산계수의 0.4승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결과치를 상호 관련시켜 Sherwood수는 Reynolds수의 1.506승, Schmidt수의 0.5승에 비례하는 무차원식을 발표하였다. Hikita등[10]은 액상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점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화학적 호기성 폐수 처리공정에 필요한 산소전달을 위한 장치로 흡수탑의 설계에 필요한 물질전달계수를 얻기 위하여 젖은 벽탑을 사용해서 공기중의 산소를 증류수에 흡수시키는 실험에 착수하였다. 실험은 대기압, 증류영역에서 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중경막이론으로 해석하여 총괄액상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온도와 액체유량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여기서 얻은 결과치를 상호관련시켜 무차원 상관관계식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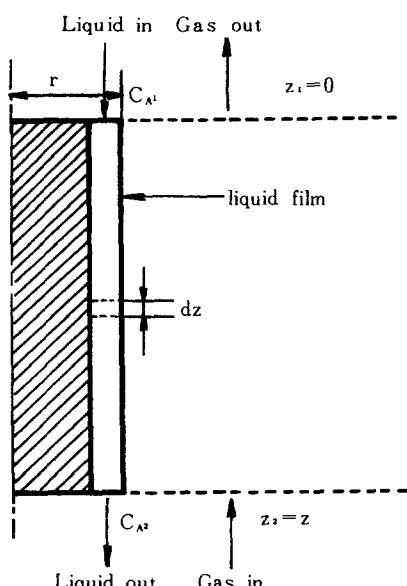


Fig. 1. Gas-liquid interface in the wetted wall column

II. 이 론

기체와 액체가 접한 경계면에서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가 작은 경우 이중경막이론에 의한 물질전달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dN_A = k_L A (C_A^* - C_A) = K_L A (C_A^* - C_A) \dots\dots\dots (1)$$

Fig. 1과 같은 젖은 벽탑에서 미소구간 dz 에서의 물질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dN_A = d(V_L C_A) = V_L dC_A \dots\dots\dots (2)$$

장치에서 미소면적 $dA = 2\pi r dz$ 이므로 정상상태에서는 식(2)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N_A = (N_A/A) 2\pi r dz = V_L dC_A \dots\dots\dots (3)$$

식(1)을 식(3)에 대입하여 다음식을 얻는다.

$$K_L (C_A^* - C_A) 2\pi r dz = V_L dC_A \dots\dots\dots (4)$$

식(4)를 적분하면 식(5)와 같이 된다.

$$-\ln(C_A^* - C_A) = K_L 2\pi r z / V_L + C \dots\dots\dots (5)$$

여기서 K_L , V_L 는 상수이다.

식(5)에서 $-\ln(C_A^* - C_A)$ 를 z 에 대하여 도시하였을 경우 직선이 얻어지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총괄액상물질전달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K_L 와 다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Buckingham의 Pi이론으로 차원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Sh_L = f(Re_L, Sc_L) \dots\dots\dots (6)$$

여기서 $Sh_L = K_L D_{\rho L} M / D_L \rho_L$ (—)

$$Re_L = 4V_L \rho_L / \pi D_L \mu_L \quad (—)$$

$$Sc_L = \mu_L / D_L \rho_L \quad (—) \quad \text{이다.}$$

젖은 벽탑에 대한 무차원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7)과 같고 실험치를 이용하여 상수 k , m , n 을 계산할 수 있다.

$$Sh_L = k (Re_L)^m (Sc_L)^n \dots\dots\dots (7)$$

III. 실 험

1. 실험장치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를 Fig. 2에 도시하였다. 본 장치는 기체와 액체간의 물질전달을 위한 젖은 벽탑과 기체와 액체를 항온시키는 항온조, 압축기, 펌프, 기체를 포화시키는 포화기, 유량조절 장치 및 측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처리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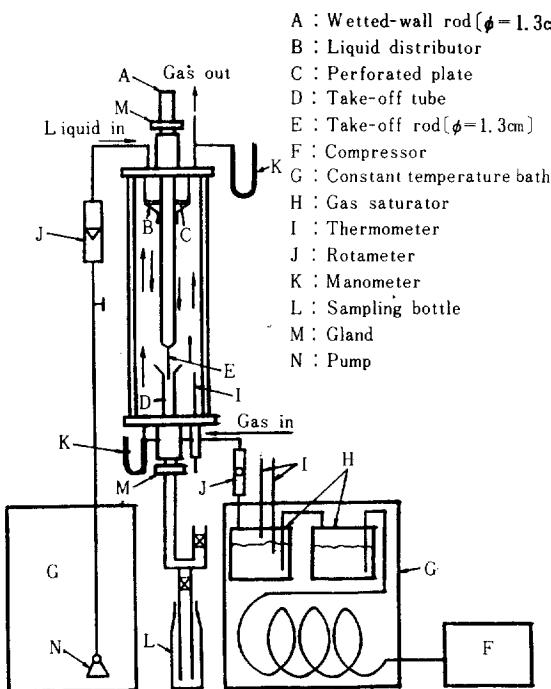


Fig. 2. Schematic diagram for experiment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증류수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세거하기 위하여
Na₂SO₃를 사용하였고, 촉매로는 CoCl₂를 사용하였다.

Na_2SO_4 가 과잉으로 공급될 경우 실험에 의하여 흡수되는 산소와 반응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량의 90%만 가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하였다. 촐매량은 최소 1.5ppm 이상 첨가하였다 [11].

용존산소가 세거된 액체는 잔존 용존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에 항온조 안에 있는 펌프로 rotameter를 통해 탑 상부에 도입되고 동시에 기체는 실험온도에서 포화시킨 후 탑 하부에 공급된다. 탑 상부에 도입된 액체가 액체분배기를 통해 젖은 벽탑을 film 형태로 훌러 내리면서 상승하는 기체와 접촉하게 하였다. 기체와 접촉한 액체는 take-off rod를 타고 take-off tube로 들어가게 하였고, 탑 상부로 나오는 기체는 대기 중으로 배출시켰다. take-off tube의 액위는 stagnant film 때문에 기인하는 end effect를 제거하기 위하여 take-off rod가 덜어지

도록 조절하였다.

액체시료는 흐름이 안정화 된 후에 take-off tube 하부에서 시료병을 5분 동안 over-flow 시킨 다음 채취하였고, 들어가고 나가는 액체의 용존산소농도는 Winkler 적정법과 oxygen meter (YSI Model 54) 을 병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체유량은 $77.3\text{cm}^3/\text{sec}$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액체유량은 3.5, 4.2, 4.9 및 $5.6\text{cm}^3/\text{sec}$ 로 변화시켰고, 실험온도는 $5\sim40^\circ\text{C}$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또한 rod의 높이는 $3\sim35\text{cm}$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실험압력은 대기압이었으며 텁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 차는 거의 없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온도, 액체유량, rod의 높이 변화에 따른 총 팔액상물질전달계수

실험온도를 10°C , 20°C , 30°C 및 40°C 로 일정하게 한 후 rod의 높이를 3~35cm내의 일정한 값으로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액체유량 3.5, 4.2, 4.9 및 5.6cm³/sec에서 C_s 를 측정하였다.

Fig. 3~6은 온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ln(C_A^* - C_A)$ 와 Z 사이의 관계를 각 액체 유량에 대해서 도시한 것으로 이들의 관계가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총 팔액상 불질전달계수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I에 무차원수와 함께 온도와 액체유량에 따라 나타내었다.

여기서 액체의 밀도는 Ostwald pycn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액체의 점도는 glass 세 Ostwald visc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액상에서의 산소 확산계수는 Othmer와 Thakar식[12]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D_L = 0.00014 / \mu_L^{1.1} V_A^{0.6} \quad \dots \dots \dots \quad (8)$$

이들 물성의 값을 용해도와 함께 Table II., III에 수록하였다.

2. 총괄액상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온도의 영향

총 팔액 상물질 전달 계수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Fig. 7에 도시하였다. Fig. 7로부터 K_L 은 온도가 증가 할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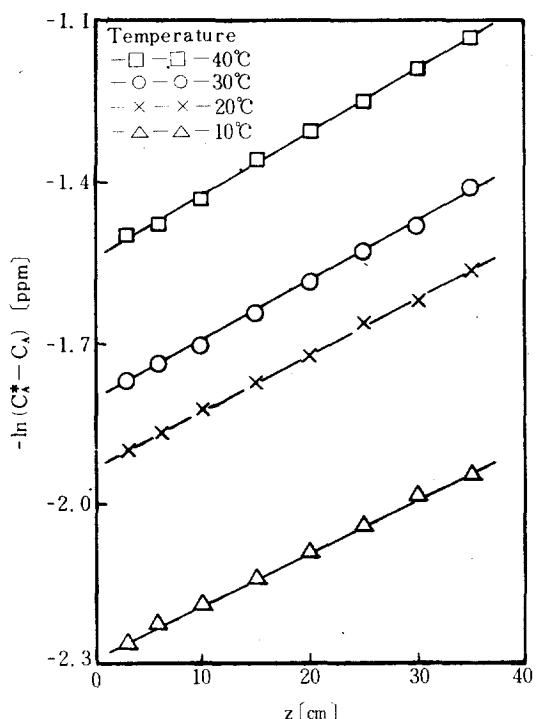


Fig. 3. Plots of $-\ln(C_A^* - C_A)$ vs. z (liquid flow rate = $3.5 \text{ cm}^3/\text{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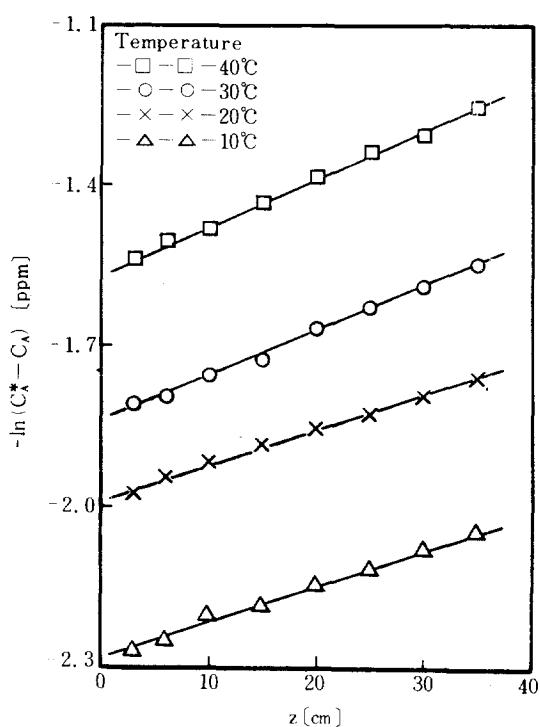


Fig. 5. Plots of $-\ln(C_A^* - C_A)$ vs. z (liquid flow rate = $4.9 \text{ cm}^3/\text{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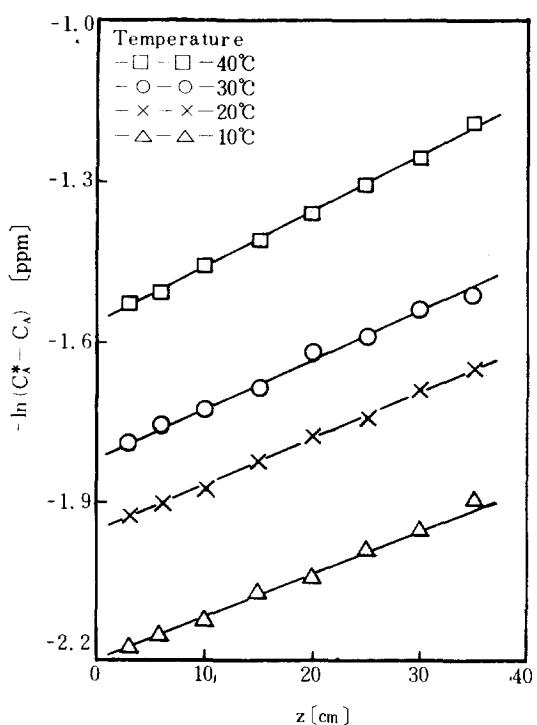


Fig. 4. Plots of $-\ln(C_A^* - C_A)$ vs. z (liquid flow rate = $4.2 \text{ cm}^3/\text{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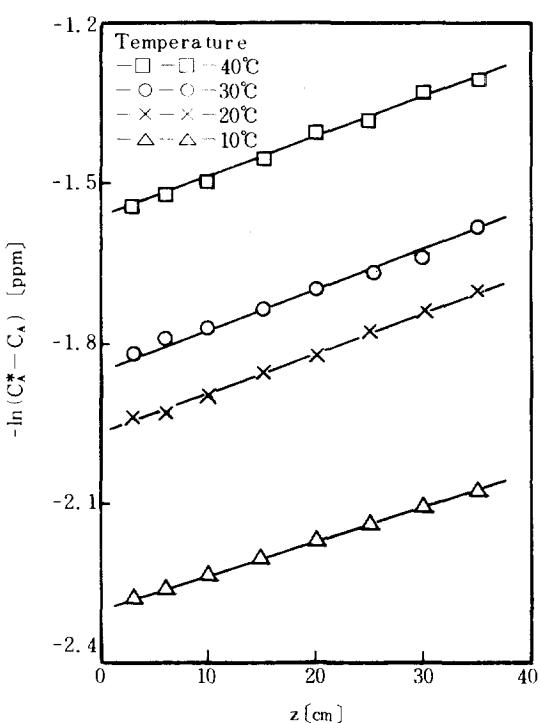


Fig. 6. Plots of $-\ln(C_A^* - C_A)$ vs. z (liquid flow rate = $5.6 \text{ cm}^3/\text{sec}$)

Table I. K_L , Re_f , and Sc_L values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liquid flow rate

Temp. (°C)	V_L (cm ³ /sec)	$K_L \times 10^3$ (cm/sec)	Re_f	Sh_L	Sc_L
10	3.5	8.32	241.13	795.98	1045
	4.2	8.42	289.35	805.47	
	4.9	8.52	337.58	815.04	
	5.6	8.63	385.80	825.56	
20	3.5	8.91	277.02	732.52	780
	4.2	9.04	332.42	742.31	
	4.9	9.14	387.83	750.42	
	5.6	9.26	443.23	760.38	
30	3.5	9.57	307.03	701.63	627
	4.2	9.65	368.54	707.49	
	4.9	9.80	429.85	718.49	
	5.6	9.93	491.25	728.02	
40	3.5	10.26	336.92	678.96	514
	4.2	10.40	404.30	688.22	
	4.9	10.50	471.68	694.85	
	5.6	10.60	539.07	704.77	

Table II. Physical properties of liquid feed

Temperature (°C)	Density (g/cm ³)	Viscosity (g/cm. sec)
5	0.99905	0.015247
10	0.99891	0.014201
15	0.99878	0.013375
20	0.99811	0.012351
25	0.99655	0.011674
30	0.99617	0.011122
35	0.99527	0.010537
40	0.99366	0.010110

Table II, III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액상에서의 산소의 확산계수가 증가하고 또한 액체의 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K_L 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8은 총 팔액상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20°C를 기준으로 한 단일 관계를 얻기 위하여 도시한 것으로 각 점들은 액체유량에 관계없이 동일 직선상에 놓임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직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나의 관계식을 얻었다.

Table III. Diffusivities and solubilities of oxygen in distilled water

Temperature (°C)	Diffusivity $\times 10^3$ (cm ² /sec)	Solubility (ppm)
5	1.258	12.79
10	1.360	11.27
15	1.453	10.03
20	1.586	9.02
25	1.688	8.18
30	1.780	7.44
35	1.889	7.10
40	1.977	6.60

(Fig. 8에서 액체유량 4.2cm³/sec에 대하여는 5°C 간격으로 실험하여 그 값을 표시하였음)

$$K_{L(t)} = K_{L(20)} \cdot 1.007^{(t-20)} \quad \dots \dots \dots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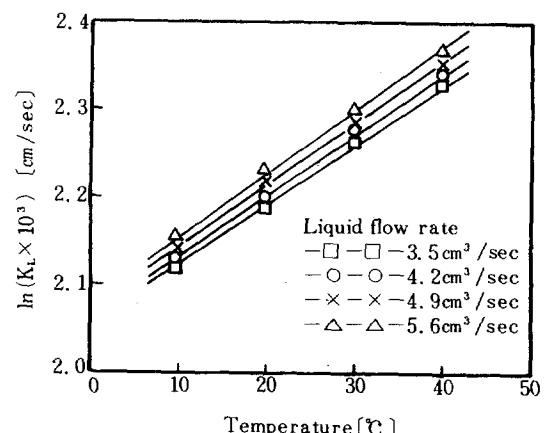


Fig. 7. Effect of temperature on over-all liquid phase mass transfer coeffic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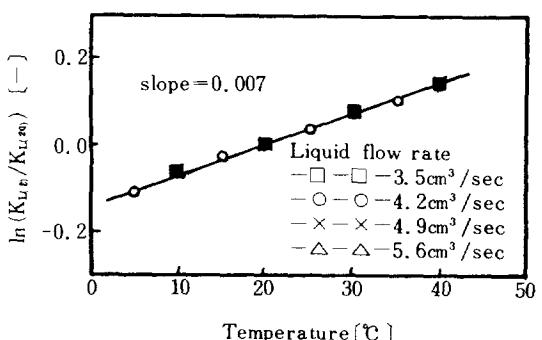


Fig. 8. Plot of $\ln(K_{L(t)}/K_{L(20)})$ vs. temperature

3. 무차원 상관관계

젖은 벽탑에서 물질전달 무차원 상관관계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7)과 같다. 무차원 상관관계식을 구하기 위하여 Re_s , Sh_L 및 Sc_L 사이의 관계를 Fig. 9~11에 나타내었다.

Fig. 9로부터 양대수 좌표상에서 Sh_L 와 Re_s 사이의 관계가 각각의 온도에서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기울기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며, 그 평균 기울기 0.0782를 얻었다. 이것은 Sh_L 가 Re_s 수의 0.0782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Fig. 10에서는 $\ln(Sh_L/Re_s^{0.0782})$ 와 $\ln Sc_L$ 사이의 관계가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0으로부터 계산한 무차원 상관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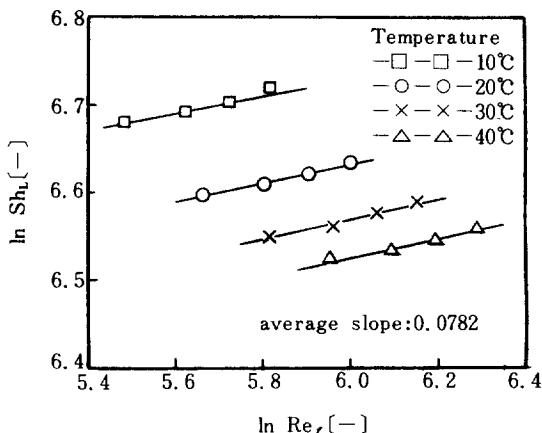


Fig. 9. Plots of $\ln Sh_L$ vs. $\ln Re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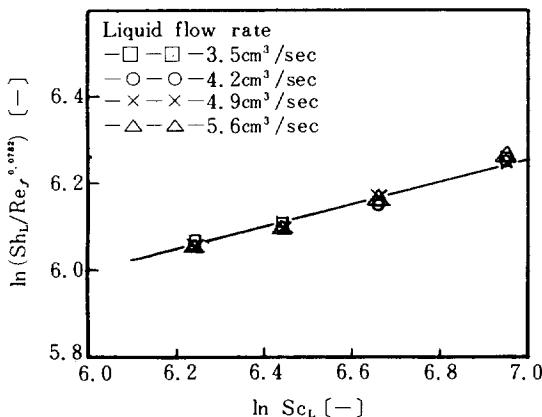


Fig. 10. Plot of $\ln(Sh_L/Re_s^{0.0782})$ vs. $\ln Sc_L$.

$$Sh_L = 83.89 (Re_s)^{0.0782} (Sc_L)^{0.2607} \quad \text{(10)}$$

식(10)에서 Sh_L 가 Re_s 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은 유체가 층류로 흐르며 산소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작은 점을 들 수 있다.

Fig. 9, 10으로부터 계산된 무차원식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는 Fig. 11에 도시하였다. 실험치와 계산치는 5% 오차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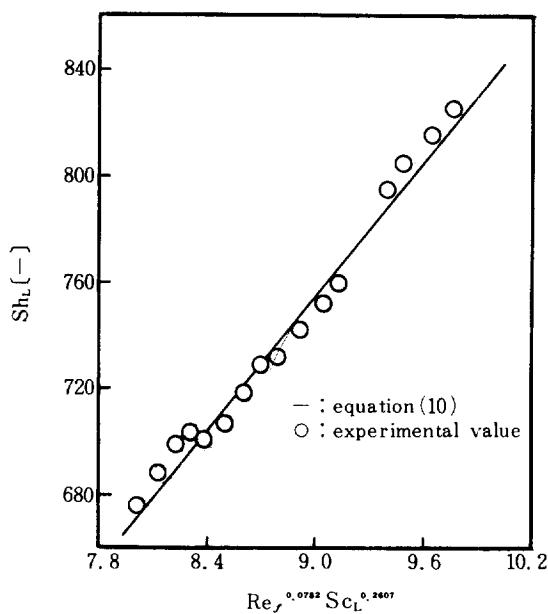


Fig. 11. Comparison of calculated values with experimental values

V. 결론

지름 1.3cm인 젖은 벽탑에서 rod의 높이를 3~35cm로 변화시키면서 공기중의 산소를 층류수에 흡수시키는 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 및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층류액상물질전달계수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K_{L(t)} = K_{L(20)} \cdot 1.007^{(t-20)}$$

2. 층류영역에서 젖은 벽탑에서의 무차원 상관관계식은 다음과 같았다.

$$Sh_L = 83.89 (Re_s)^{0.0782} (Sc_L)^{0.2607}$$

Nomenclature

- A : interfacial area for transfer (cm^2)
 C_A : concentration of gas in the bulk of liquid ($\text{g-mole}/\text{cm}^3$)
 C_A^{*} : saturated concentration of gas in the bulk of liquid ($\text{g-mole}/\text{cm}^3$)
 D : diameter of wetted wall rod containing liquid film thickness (cm)
 D_L : diffusivity of oxygen in liquid (cm/sec)
 H : Henry's law constant ($\text{g-mole}/\text{cm}^3 \cdot \text{atm}$)
 k : constant in equation (7)
 k_L : liquid film mass transfer coefficient [$\text{g-mole}/\text{cm}^2 \cdot \text{sec}$. ($\text{g-mole}/\text{cm}^3$)]
 K_L : over-all liquid phase mass transfer coefficient [$\text{g-mole}/\text{cm}^2 \cdot \text{sec}$. ($\text{g-mole}/\text{cm}^3$)]
 K_{L(t)}, K_{L(20)} : over-all liquid phase mass transfer coefficient at $t^\circ\text{C}$ and 20°C , respectively [$\text{g-mole}/\text{cm}^3$]
 m : constant in equation (7)
 M : average molecular weight in the liquid phase (g/g-mole)
 n : constant in equation (7)
 N_A : rate of mass transfer (g-mole/sec)
 r : radius of wetted wall rod containing liquid film thickness (cm)
 Re_f : film Reynolds number ($4V_L\rho_L/\pi D \mu_L$)
 Sc_L : liquid Schmidt number ($\mu_L/D_L \rho_L$)
 Sh_L : liquid Sherwood number ($K_L D \rho_m M / D_L \rho_L$)
 t : temperature ($^\circ\text{C}$)
 V_A : molal volume of oxygen at normal boiling point ($\text{cm}^3/\text{g-mole}$)
 V_L : volumetric flow rate of water (cm^3/sec)
 z : height of rod (cm)

Greek letters

- ρ_L : density of liquid feed (g/cm^3)
 ρ_m : molar density of liquid phase ($\text{g-mole}/\text{cm}^3$)
 μ_L : viscosity of liquid feed ($\text{g}/\text{cm. sec.}$)

Subscripts

- f : film
 L : liquid

References

1. Lewis, W. K. : Ind. Eng. Chem., **8**, 825 (1916).
2. Whitman; W. G. : Chem. and Met. Eng., **29**, 147 (1923).
3. Higbie, R. : AIChE J., **31**, 365 (1935).
4. Danckwerts, P. V. : Ind. Eng. Chem., **43**, 1460 (1951).
5. Toor, H. L. and Marchello, J. M. : AIChE J., **4**, 97 (1958).
6. Hikita, H. Asai S. and Takatsuka, T. : Chem. Eng. J., **11**, 131 (1976).
7. Hikita, H. Asai, S. Yano A. and Nose, H. : AIChE J., **28**, 1009 (1982).
8. Hikita, H. Asai, S. and Tsuji, T. : AIChE J., **23**, 538 (1977).
9. Lamoureille, A. P. and Sandall, O. C. : Chem. Eng. Sci., **27**, 1035 (1972).
10. Hikita, H. Asai, S. and Azuma, Y. : Can. J. Chem. Eng., **56**, 371 (1978).
11. Ramalho, R. S. : "Introduction to waste Treatment Processes" Academic Press, p. 129 (1977).
12. Othmer, D. F. and Thakar, M. S. : Ind. Eng. Chem., **45**, 589 (1953).